

전주동물원, 시민과 한걸음 가까워진다

사육사가 직접 찍은 동물사진 전시 등 동물의 본성·생명의 소중함 배우는 교육공간으로 탈바꿈

동대한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에서 벗어나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에 가까운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중인 전주동물원이 시민과 동물들이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동물원은 최근 사육사가 직접 찍은 동물사진을 관람객이 많이 다니는 2곳에 전시해,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동물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시된 사진은 하품하는 하마, 우유 먹는 나귀, 우이하게 앉아 있는 호랑이 등 사육사가 동물들 보살피

면서 촬영한 평소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동물원은 각 동물사마다 사육사들이 동물을 관찰하고 사육하면서 느낀 재미있는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사육사노트'도 게시하고 있다.

사육사 노트에는 동물들의 이름과 신체적 특성, 자연생태의 동물의 역할, 비슷한 동물의 구별법 등에 대해 사육사가 그림과 손 글씨로 친절히 설명해 관람객들에게 동물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각각의 동물들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있다.

또한 동물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문 교육을 이수한 15명의 동물 생태해설 사들이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호랑이사자사와 침팬지사, 곰사.큰물 새장 등 동물사를 함께 돌며 동물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주동물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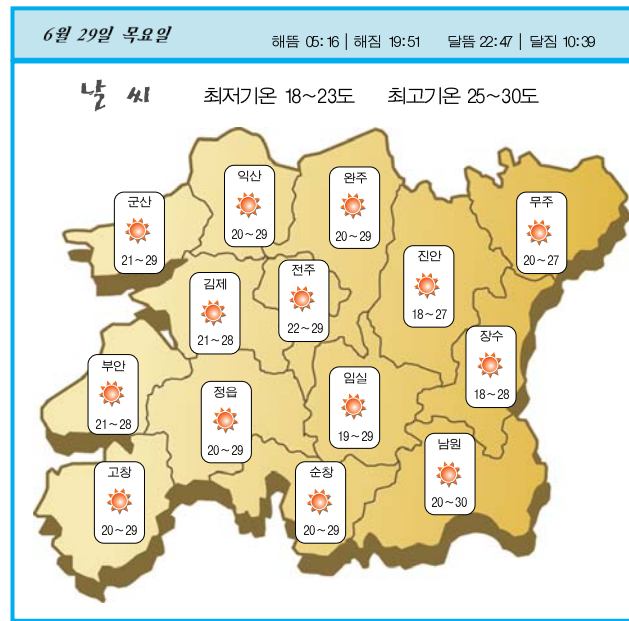
이를 통해, 전주동물원은 단순하게 시민들이 전시된 동물을 관람하던 것에서 벗어나 동물의 본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는 교육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호랑이사.늑대사 개선을 통해 동물들에게 서식지와 유사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시는 앞으로도 곰사와 사자사 등 동물원 내 모든 동물사들을 동물복지 공간이자 시민친화공간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동물원이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고, 생명존중과 자연 생태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평생 학자로 사셨던 선친(심천 이강오교수)의 발자취 모교에 영원히 기억되길"

이용재 재경동창회장, 모교에 5억 원 기부

"전북대학교에서 평생을 학자로 사셨던 선친의 발자취가 모교에 영원히 남아 기억되길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가와 불가, 도가를 섭렵한 한국 신흥종교 연구의 대가로 추앙 받고 있는 심천(心泉) 이강오 선생(1920~1996). 그가 남긴 업적과 학문적 발자취를 모교에 아로새기기 위해 그의 후손과 생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섰다.



심천 선생의 아들인 이용재 전북대 재경동창회장이 선친을 기리기 위해 전북대와 가칭 '심천학당'을 건립키로 하고 27일 이남호 총장을 찾아 5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한 것. 선친이 수행한 평생의 자취를 모교에 남기고 싶어 했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용재 회장은 "평생 선친의 연구 업적에 대해 자녀로서 큰 존경심을 가졌었는데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아버지의 발자취를 모교에 남길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기쁘다"며 "부친의 많은 업적들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후세에도 길이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주강씨 별좌공파(別座公派) 종중과 울 2월 퇴임한 양근의 교수(기계공학과)도 각각 1천만 원씩을 내놓아 심천학당 건립에 힘을 보탰다.

진주강씨(晉州姜氏) 별좌공파(別座公派) 종중은 전주 호성동에 위치한 집안 제단인 지행당(趾行堂)

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이강오 교수의 당시 고증이 큰 힘이 됐다는 점을 감사히 여겨 기탁에 동참했다.

또한 종중 대표인 강대석 변호사와 사촌 간인 양근의 교수 역시 이강오 선생에 대한 평소 감사함을 이번 기금으로 대신했다.

심천학당은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일환으로 추진하는 큰사람교육육개발원 겸 한옥 정문 옆에 전통학당 양식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심천 이강오 선생은 1960년 전북대의 전신인 전주 병률대학 경학과(經學科)에 입학해 유학(儒學)을 공부

해 1962년 전북대로 개편될 때 철학과로 편입학했다.

1964년 동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했고 1968년부터 철학과 교수로 한국사상과 한국철학을 강의하다가 1985년 정년퇴임했다.

한국철학과 향토문화 신흥종교 등의 분야에서 학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무엇보다 한국의 신흥종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념 정리, 계통과 지역 분류 등의 연구를 해방 이후 한국 신흥종교 연구에 하나의 큰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천 선생은 1967년 전북대에 '신흥종교연구소'를 설립, 신흥종교 현장을 직접 조사해 3백40여 단락을 13개 계층으로 분류했고 이와 관련한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1970년대 들어 이 종교들을 지역별로 분류한 논문을 '한국민속조사 보고서'에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신흥종교를 집대성했다.

심천 선생의 연구 업적은 일제강점기 이후 처음으로 신흥종교 전반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는 점과 특정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 개방형 공개모집

군산·남원·임실센터, 7월 6~12일 원서접수

전라북도교육청이 영어체험학습센터 3곳의 원장을 각각 개방형직위로 채용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새로 원장을 공개 채용하는 영어체험학습센터는 군산 남원, 임실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내달 7월6~12일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8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플 토익, 텀스 플렉스 등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응시자격은 학위소지자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7년 이상인 사람(박사학위 소지자 2년, 석사 5년, 학사 7년 이상)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경력(석·박사학위 소지자 1년, 학사 2년 이상)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또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급 상당 공무원(6급 상당은 5년 이상)과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연구하고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지원 가능하다.

임용 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는 전북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63-239-3449).

정해은기자

내달 13일부터 전북지역 학교 여름방학 시작

전북도내 초·중·고·특수학교가 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7월 21~27일 사이에 종업식을 갖고 방학에 들어간 후 다음달 21일 전후 개학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한별고등학교가 7월 13일에 가장 빠른 방학에 들어가고, 19일 12개 학교를 시작으로 21일에 가장 많은 23개 학교가 방학에 들어

간다.

전주지역에서 방학이 가장 빠른 학교는 18일 전주평화중을 시작으로 19일에는 양현고 전주술내고 전주제일고 상산고가 종업식을 갖는다.

가장 방학 시작이 늦은 학교는 전주남초, 전주대성초, 전주중일초가 7월 31일에 방학에 들어간다.

전북지역 전체 772교의 여름방학 일수는 평균 25.8일정도이다.

정해은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신용)오태식
상임이사(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